궁금했어요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노래” 가사에서 “서라벌 옛 터전에 연꽃이 이울어라”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경주 김씨가 아니라 김해 김씨인 김대건 신부님과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이 무슨 관계인지요?

“성가를 부를 때마다 분심이 들었다”는 말씀을 읽으며 그 동안 얼마나 ‘무감각’하게 성가를 불렀는지를 깨닫고 뜨끔했습니다. 성가를 절실한 기도로 바치는 그 마음을 닮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지적하셨듯이 서라벌은 김대건 신부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서라벌과 연꽃이라는 시어를 선택한 작사자의 속뜻이 분명 있을텐데요. 작사자 최민순 신부님의 의중은 천국에서나 들을 수 있을 것이니 …, 제 나름의 해석을 드려드립니다. 서라벌과 연꽃은 불교의 대표적 상징어입니다. 그러니 “선비네 흰옷자락”이라는 구절도 유교의 상징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아울러 “이운다”는 표현이 해가 기울어 가며 빛이 약해지는 뜻임을 감안하면 작사자의 의도가 훨씬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조선의 기존 종교들이 그 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심으셨던 신부님의 믿음과 수고를 높이 기린 것을 가늠하게 됩니다. ‘무궁화’도 그 꽃말처럼 ‘끝없이 영원한’ 진리로 우리나라가 항구할 것을 소망한 것이라 싶습니다. ‘시’는 읽는 이의 작품이라는 말처럼, 믿음의 선조를 선물해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성가를 부른다면, 분심이 달아날 것입니다.

『소곤소곤 이런 질문해도 되나요?』, p.110~111, 장재봉 신부 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8|7|제105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주님은 모든 것을 샅샅이 아시나이다

(시편 139,1-10)

시작 성가

진 행 자 • 가톨릭 성가 18장 "주님을 부르던 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 행 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마음을 다해 의탁하게 하소서.
– 사랑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하느님 말씀

진 행 자 • 한 분이 시편 제139편 1절에서 10절 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39, 1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2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3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4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5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6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7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8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9 제가 새벽 놀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10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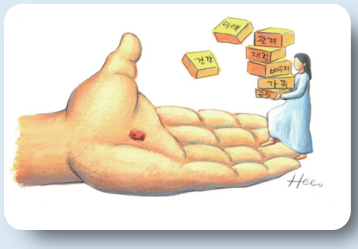
진 행 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 행 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 행 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나는 어디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있나요?
– 신앙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의탁할 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체험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 행 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숙성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목마른 나나니벌과 자고새가 농부의 집에 와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들이 농부를 도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자고새는 부리를 이용해 밭일을 도울 수 있고, 벌은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좀도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농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내 소들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니 물은 내 소들한테 먹일지언정 너희들에게 주고 싶지 않구나."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급조된 충성(?)은 속임수이거나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많기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관계성과 체험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이성적 판단 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인 신앙생활은 하루 아침에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숙성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급해진 문제를 풀기 위해 하느님 앞에서의 급조된 약속들은 문제해결 이후에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것은 얕은 우리 신앙의 한계를 보게 할 뿐이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다.

정중규 신부, 「**작은 몸짓 하나로**」 중에서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 행 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 행 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침 기 도

진 행 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 침 성 가

진 행 자 • 가톨릭 성가 18장 "주님을 부르던 날" 2,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끊임없이 노력하는 즐거운 소공동체 |

- 장평본당 1구역 덕산아내 반장 임명숙 마리아 -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를 주보성인으로 모신 거제 장평본당은 1994년 4월 12일 박정일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던 때에는 많은 교우들이 함께 활기찬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떠나면서 신자들의 생활과 본당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정범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두 분 수녀님, 사목위원, 여러 신심단체, 전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공동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본당설립 25주년이 됩니다. 모두 새로운 다짐과 노력으로 25주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3개 구역 16개 소공동체에서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구역 덕산아내 반은 34세대 104명으로 50~70대가 주를 이루며, 사목회장, 성가대 지휘자, 꾸리아 단장, 마리아교실 담당자 등 본당의 봉사를 맡고 계신 분이 많으십니다.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에 따라 하느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에 따른 활동사항을 실천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당청소, 대축일 음식봉사, 병자방문, 어려운 이웃돌보기 등이 그것입니다.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시간과 활동내용을 선택하여 봉사합니다. 이런 활동을 함께 해나가며 반원들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기쁨을 느낍니다. 매년 연말이면 많은 반원들이 모여 한해를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더 보람차게 활동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며 친교를 이루는 1구역 덕산아내 반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소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소공동제와 사반세기를 맞이하는 본당 공동체를 위해 전구해주시는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려봅니다.